

국가 형제회 양성위원회

Francine Gikow, OFS

국가 형제회 위원

“아,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의 저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시기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인종 차별과 인종에 근거한 불평등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기 초부터 우리는 복음을 신중히 자주 읽고 “복음을 생활화하고 생활을 복음화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요? 재속 프란치스코회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교회는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가장 필수적인 우리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완수하고자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¹

가난한 이들에 대한 교회의 사랑은 참 행복의 복음, 예수님의 가난,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분의 관심에서 영감을 받는다. 교회는 모든 이들을 위해 특히 가난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며 자선을 독려한다....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와 정치구조를 만들게 하는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한다.... 교회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고, 마음에 있는 이기심 또는 집단의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와 지도로 이끌린다. 그리고 하느님과 완전한 일체가 되고 형제자매인 모든이들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도록 한다.”²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교회는 세상안에서 재속프란치스코회원인 우리가 사회의 모든 이들이 평등하도록 힘쓰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령의 부르심에 따르는 데 있어서, 각자의 고유한 능력과 성격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세상에 있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성서와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을 모아 나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목록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록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성경 구절을 선택하셔서 기도와

묵상을 하시고, 어느 구절이 마음에 닿아 왔는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형제회 모임에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각 성경 구절들을 잘라서 통 안에 넣고 매일 하나씩 꺼내어 다른 말씀을 묵상해도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편견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 보십시오. 태도를

바꾸려는 결심을 하십시오. 뭔가 달리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결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존경심을 갖고 대화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끝이 없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께서 그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가 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시기를 빕니다.”
(첼라노의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의 생애)

성경 구절

사랑과 순종의 법 (신명기 10:17-20)

산상 설교 (마태 5:1-10, 루카 6:20-26)

박해를 각오하여라 (마태 10:16-23)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태 13:1-17)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이고 용서하여라 (마태 18:21-22)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마태 19:23-27)

가장 큰 계명 (마태 22:34-40)

재난의 시작 (마태 24:9-14)

최후의 심판 (마태 25:31-36)

최후의 심판 (마태 25:31-36)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시다 (요한 4:4-42)

원수를 사랑하여라 (루카 6:27-36)

남을 심판하지 마라 (루카 6:37-38)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 10:29-37)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 (루카 16:19-31)

간음하다 잡힌 여자 (요한 8:1-11)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로마 12:2)

참된 공동체 (히브 13:1-3)

차별 대우 (야고 2:12-13)

믿음과 실천 (야고 2:22-24)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야고 4:11)

¹ Guadium et Spes, 4.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

² 1974년 10월 26일 시노드 정기 3차 주교회의, “현대의 복음 선교”: 가톨릭 사회교리서